

## [QT 세미나]

### 광야와 묵상

이상규 목사 / 1999 / 페이지수: 2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혹독한 광야 학교를 거쳐야만 했다. 여호와와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오랜 애굽 생활 속에서 노예화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열방의 빛으로 세우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한 여호와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 광야 학교의 교훈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나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당장의 불안한 생존을 보장해줄 현실적 '떡'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뿌리까지 노예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 학교는 일단 들어설 수는 있으나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곳이었다.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유급'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기대한 학점을 얻지 못한 60만3천5백50명은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학습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Identity)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경외와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노예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출 4:22)이요, '왕 같은 제사장'(출 19:5,6)으로서의 자의식을 확보해야 했고, 극한의 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했으며(신 8:3), 천하만국을 보여 주어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해야 했고(신 6:13),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 보여도 여호와의 임재를 시험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신 6:16).

아래의 도표는 이와 같은 40년 광야 학교를 통한 이스라엘의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보여 준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 학교의 졸업사와도 같은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이후 거쳐온 이 혹독한 광야 40년의 교훈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책(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수 1:8).

#### 기억과 묵상의 지혜

현재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억-묵상'의 지혜를 철저히 터득했고 지금도 삶 속에 적용하는 민족이다.

단적인 예로 나치 독일에 의해 6백만 명의 동족이 학살된 가공스런 경험을 그들은 결코

덮어두거나 잊으려 하지 않는다. 홀로코스트(Holocaust) 기념관 출구에는 18세기 랍비 바알 쉘 토브(Rabbi Baal Shem Tov)의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망각은 과거의 치욕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다”

그리고 보면 광야와 같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사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스라엘 40년 교훈에 대한 기억과 묵상은 우리의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세월을 아끼게 해주는 보배와 같은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본 문	출4:22	출19:5,6	민1:3, 민13	민14~26	신26:18,19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관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내 보배로운 자 제사장나라 거룩한 나라	여호와와 군대	애굽적(우상적)세계관에 근거한 선,악의 관점에 물든 제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내적치유) 아직 선,악을 모르는(신1:39) 제2세대는 하나님의 보시는대로의 선,악의 관점을 훈련시킴(제자훈련)	보배로운 백성, 지존자 거룩한 나라
가기 보는 대로의 선,악의 관점	노예	노예	메뚜기		하나님의 아들 보배로운 백성 지존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사건)	언약 공동체 (출애굽사건)	예배 공동체 (레위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공동체 (민수기-신명기)	

\* 출처 : QT신문